



미사 예물을 바쳤는데 발표되지 않았다고 사무실에 따지는 경우를 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특정한 지향을 봉헌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바치는 헌금이 미사 예물입니다. 이는 성직자의 생계가 신자들의 헌금으로 꾸려져야 한다는 하느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입니다(민수 18,8-20; 느헤 12,47; 루카 10,7; 1코린 9,7-14 참조). 교회는 성부께 자신을 봉헌한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와의 일치가 더욱 증진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미사 예물의 봉헌이 신앙인에게 유익하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향의 대상자에게 특별한 은총이 따르는 미사 예물은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자금인 까닭에 교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아주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미사는 예물로 사거나 독차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잔치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제사인 까닭이지요. 미사가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찬미를 바치는 전례임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천부당만부당한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사제가 미사 지향을 알리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지향을 가진다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만을 생각하십시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의심하거나 따지는 일은, 받은 은혜조차 감하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전을 그리는 마음

시작 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66번 '주의 백성 모여 오라' 1,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당신을 간절히 찾나이다.
 - 주님,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4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43,1 하느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충실치 못한 백성을 거슬러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 2 당신은 제 피신처 하느님이시건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꾀박 속에
슬피 걸어가야 합니까?
- 3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실을 보내소서.
그들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그들이 저를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 4 그러면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파 타며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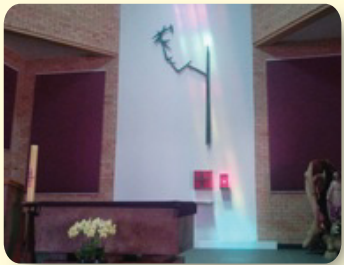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나의 피신처가 되어 주는 곳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기쁨의 순간에 성당을 찾아가 조용히 감실 앞에 머물러 보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분노조절장애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크고 작은 분노의 언어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여과되지 않고 흘러넘치는 것을 봅니다. 걸러지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하수구로 마구 쏟아져 나오는 오물들처럼 내 소중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감정들을 걸러줄 여과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모신 성전은 우리 영혼의 이런 여과지와 같은 곳입니다.

신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왁자지껄하던 성당 마당이 조용해질 무렵, 다시금 성당 문을 열고 들어서 제대 앞에 앉으면 잔잔한 소란함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조용한 미풍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는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거대한 파도가 되어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감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가연은 저희’를 돌보아 주시라고 주님께 탄원해보기도 합니다. 거친 숨과 함께 휘몰아쳤던 거대한 분심의 파도가 물러가면 어느새 다시금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당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당은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당을 자주 찾고 있습니까? 고요히 감실 앞에 앉아 주님을 마주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날 문득 감실 앞

에 앉아 주님을 마주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깊은 곳에서 함께 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는 조용한 시간, 일부러 성당 쪽으로 돌아서 집으로 가 보지는 않으시렵니까?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1,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안에 우리 모두 한 형제 |

- 상남동본당 소공동체분과장 강윤희(스콜라스티카) -

마산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육호광장, 그 오른편에는 지난해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상남동본당이 있습니다. 50년 전 남성동본당에서 분리된 후 지금까지 많은 본당을 분가시켰고 역사가 긴 만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구역내에도 오래된 주택이 많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들어 따라 신자수도 많이 줄었지만 50주년을 맞이한 신자들은 일치된 모습으로 마음을 모아 오래된 성전을 보수하고 여러 행사들을 알차게 치렀습니다.

소공동체는 총 1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반원 수가 적은 반은 2개 반씩 합하여 현재 13개의 소공동체가 소공동체장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개하고 싶은 반은 1구역 5반으로 처음 2명의 반원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 8명의 반원이 모임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개발로 흩어진 반원들과 활동을 하지 않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지금처럼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말씀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그에 힘입어 단합과 일치로 형제애를 나누며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가정들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며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해 50주년 행사로 개최된 반별 성가경연대회에는 부부와 자녀들까지 1구역 5반에서 총 16명이 출연하였는데 다수 출연가산점을 얻어 1등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반모임 장소가 없을 때에는 본당에 모여 본당의 크고 작은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하고, 활동계획을 세우며, 반원들의 소식을 나누며 친교를 쌓아갑니다.

소공동체가 안에서 개개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자라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남동본당의 모든 소공동체가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협력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하느님께 간구합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 우리 모두 한 형제임을 알게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